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12

2021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는가?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친구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보현행원품 VI
4. 법정 스님 잔소리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휴사(休捨) 청신녀
6. 불일암 구석구석
김장독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송년 엽서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대구 경남 광주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11번 접어서 24절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쓰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1년 12월 1일 발행, 통권 322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암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는가?

12월이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이르렀다. 지나온 날들이 새삼스레 되돌아 보이는 마루턱에 올라선 것이다. 마르틴 부버가 하시디즘(유대교 신비주의)에 따른 《인간의 길》에서 한 말이 문득 떠오른다.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

이 글을 눈으로만 스치고 지나치지 말고, 나직한 자신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자신을 향해 소리 내어 읽어 보라.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지나온 세월의 무게와 빛깔을 얼마쯤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이런 물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란 말을 실감할 수 있는 12월이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이웃을 만나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주고받았는지, 자식들에게 기울인 정성이 참으로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안으로 살피는 일에 소홀하면, 기계적인 무표정한 인간으로 굳어지기 쉽고, 동물적인 속성만 턱지턱지 쌓여가면서 삶의 전체적인 리듬을 잃게 된다. 우리가 같은 생물하면서도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나직한 목소리로 물어보라.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

이와 같은 물음으로 인해 우리는 저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진정한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의 가치와 무게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도 함께 헤아리게 될 것이다.

지난 10월 중순에 겪었던 일이다. 흙벽돌 찍는 일로 오후 늦게 이천에 있는 이당도예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날은 맑게 갠 상쾌한 가을 날씨였다. 방금 해가 넘어간 뒤라 도로의 차들은 미등을 켜고 달리는 그런 시각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 그 하늘빛이 너무 고왔다. 어둠이 내리기 직전, 석양의 투명한 빛이 산자락과 능선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했다. 부드럽고 유연한 그 산의 능선이 마치 우주의 유장한 울동처럼 느껴졌다. 언뜻 보니 산등성이 위에 초이틀 초승달이 실낱같이 걸려 있었다.

능선 위에 펼쳐진 하늘빛은 고요와 평화로 물들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노을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어둠이 내려 이제는 산의 윤곽도 검게 굳어져 초승달의 자태는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다. 여기저기서 어린애 눈망울 같은 초저녁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언뜻언뜻 이런 풍경을 차창 밖으로 바라보면서, 서쪽으로 달려온 길이 그날 하루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간을 나에게 가져다주었다.

자연은 이토록 아름답다.

자연은 실로 신비롭다.

주어진 이런 아름다움과 신비를 일상의 우리는 그저 무감각하게 흘려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아름다움과 신비를, 그런 고요와 평화를 우리는 한 생애를 통해서 몇 번이나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가.

우리들의 감성이 여리고 투명하던 시절에는 길옆에 피어

있는 풀꽃 하나에도 발걸음을 멈추고 눈길을 주면서 그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에 감동을 하곤 했었다. 하루해가 기우는 해질녘의 노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싶도록 숙연해지기도 했었다. 이제 막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면 식구들을 불러 달을 보라고 소리치기도 했었다.

이 글에서 내가 시절을 굳이 과거형으로 ‘했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그와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 앞에 무감각한 생물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새와 들짐승 같은 자연의 친구들이 사라지고 나면 생물이라고는 달랑 사람들만 남게 되리라. 그때 가전제품과 쓰레기와 자동차와 매연에 둘러싸여 있을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것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생물이 아닌 괴물일 것이다.

감상과 감성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다르다. 인간의 인식능력인 감성(感性)이 마비된다면 그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일 수가 없다. 대상에서 받은 느낌으로 마음 아파하는 일을 감상(感傷)이라고 하는데, 감성이 무디어지면 감상의 기능도 할 수 없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 앞에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것은 생물이 아니다. 경제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장 은밀한 속 플인 그 감성이 메말라 간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 보라.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너는 네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

1996년에 쓰신 글입니다.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친구

법정 스님이 12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친구’입니다. 사람마다 친구가 다르니 사람을 직접 주실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좋은 친구를 부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처님도 좋은 친구가 우리 인생길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선물 잘 받아서 좋은 친구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함경에는 선우善友라는 경전이 많이 나옵니다. 선우는 착한 벗을 말합니다. 그만큼 착한 친구에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착한 벗, 선우라는 표현이 어떤 경전에는 선지식善知識으로 나옵니다. 상유타 니카야 45:2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석가족이 살고 있는 한 마을에 머물고 계실 때 시자인 아난다가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대덕이여,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들이 선량한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은 이 길의 절반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란 인생살이입니다. 수도의 길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선우는 이 길의 전부이나라.

너희들은 나를 선우로 삼았기 때문에 늙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도 늙음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죽지 않으면 안 될 인간이면서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착한 벗을 가지고 착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은 이 길의 전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친구의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자기 자신도 알게 모르게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진 친구를 가까이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젖어 듭니다.

그 친구의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하면 마치 안개 속에서 옷이 젖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룩주룩 쏟아지는 비에는 당장 젖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안개 속에서는 젖는 줄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옷이 눅눅하게 젖습니다.

친구 영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우연히 만난 이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요 메아리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 선우가 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으면 서로가 악우惡友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친구를 원하려면, 내 스스로가 좋은 친구의 감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 신선한 자극을 주어야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게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선우란 이 길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입니다.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보현행원품 VI

11월 호에 마치지 못한 보현행원품 9번째 행원을 이어 살피고 10번째 행원까지 마저 살펴서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웃에게 마음을 평등히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이웃들을 따라 줌으로써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화엄경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르침을 대할 때 우리는 크게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웅졸하고 꼭 막힌 행동거지를 하는지 부끄럽다.

부자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다.

출수록 열리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받는 일에는 얼마쯤 부담이 따르지만, 주는 것은 안과 밖이 홀가분해진다.

어떤 방법으로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남을 해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우리는 타인의 도움 속에서 산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남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

열째 행원은 보개회향普皆廻向, 모두 다 돌려줌이다.

보현보살이 말한다.

“처음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이웃의 뜻에 따르기까지,

그 모든 공덕을 온 법계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 돌려보내어,

이웃들로 하여금 항상 평안하고 즐겁고 병고가 없게 한다.

나쁜 짓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착한 일은 모두 성취되며,

온갖 나쁜 길의 문은 닫아 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길은 활짝 열어 보인다.

이웃들이 저지른 나쁜 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온갖 고통의 과보를

내가 대신 받으며,

그 이웃들이 모두 다 해탈을 얻고

마침내는 더없는 보리를 성취하도록 힘쓴다.

보살은 이와 같이 남김없이 돌려준다.”

신자들 가운데 삼재를 면하는 법이나 지옥의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묻는 분들이 있다. 이제 그 길을 말씀드린다.

삼재를 면하려면, 지옥고를 면하려면

지장보살과 같은 비원을 세우면 된다.

《불설연명지장보살경佛說延命地藏菩薩經》에는

지옥에 대한 지장보살의 바람이 이렇게 적혀 있다.

깨닫지 못한 모든 중생에게 무거운 괴로움이 있다면

내 대신 받고

깨닫지 못한 중생이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나는 깨달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六道衆生 若有重苦 我代受苦 若不爾者 不取正覺.

이것이 보살의 미덕이고 전체인 자기를 드러낸 소식이다.

이제 보현의 십대행원을 돌아보자.

1. 모든 이웃을 예배 공경하고
2. 이웃의 덕행을 찬탄하고
3. 여러 가지로 공양하고
4. 지은 허물을 참회하고
5. 남이 지은 공덕을 함께 기뻐하고
6. 설법을 청해서 듣고
7. 부모나 형제와 친지들이 오래 살아 계시기를 바라고
8. 본받아 배우고
9. 항상 이웃의 뜻에 따라 주고
10. 내가 지은 공덕을 모두 이웃에게 돌려준다.

보현보살이 말한다.

“이것으로써 보살의 열 가지 큰 서원이 원만히
갖추어진 셈이다.

만약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이 큰 서원을 따라 나아가면,
모든 이웃의 기쁨을 성숙시키고,

더없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며,

보현보살의 수행과 원력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열 가지 원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거나 베껴 쓴다면,

그렇게 산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업이라도 이내
소멸되고,

이 세상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병이며,

갖가지 괴로움과 사소한 악업까지도 죄다

소멸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보현보살의 원을 몸소 행하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 있더라도 달이 구름에서 벗어나듯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부처님과 보살들이 칭찬하고,

천상이나 인간들이 다 예배 공경할 것이다.

이 열 가지 원을 듣고 믿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고 해설한다면,

그 공덕은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원을 듣거든

의심을 내지 말고 받아 지니면서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널리

남에게 말해 주라.”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 가족이나 친구를 생각한다.

좋은 책을 읽었을 때도 그렇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다.

맺음

사흘 동안 보현행원품을 들은 이 인연 공덕으로
우리는 언젠가

시들지 않는 보살의 꽃을 피우리라 믿습니다.

삶은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선이 없는 삶은 침체됩니다.

종교는 자기로부터 시작하여

이웃과 세상에 도달하는 데서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대하고 부딪치는 구체적인 이웃이,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형성시켜주는 고마운

선지식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만남과 눈뜸과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보현보살의 화신입니다.

4. 법정 스님 잔소리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 체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다.

이 세상을 고태苦海라고 하지 않는가?

고통의 바다, 사바세계라는 말 역시 그런 뜻이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 고태,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순
조롭게 풀리기만 바랄 수는 없다.

그래서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근심과
걱정을 밖에서 오는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삶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짐을 지고 세상에 나온다. 누구나 이
세상에 남들이 넘겨볼 수 없는 짐을 지고 나온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닥쳤다고 나쁜
계만 생각하지 말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딛고 일어
서는 새로운 창의력과 의지력을 계발하라는 우주의 소식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도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한
곳이 된다.

사바세계라는 곳,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 그런데 여기에
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만약 이곳이 극락이나 지
옥이라면 사는 재미는 없을 것이다.

극락? 고통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말이다. 물론 우리가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할
세계이지만 그러나 재미는 없다. 지옥? 너무 고통스러워
서 감내할 수 없는 곳이지만 사바세계는 극락도 지옥도
아닌 그 중간이다.

그러니까 참고 견딜 만한 세상이라는 말이다.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휴사休捨 청신녀

견고한 몸과 미묘한 법의 재물을 얻은 선재동자와 우리 일행은 오체투지五體投地로 해당 비구의 발에 공손히 절하고, 사유 관찰하고 찬탄하고 사모하며 그 명호를 간직했다.

그 모습을 생각하고 음성을 생각하며, 삼매와 큰 서원과 행하는 경계를 생각하고, 그 지혜와 청정한 광명을 받으면서

마리가라 마을과 하직하고 보장엄 동산을 바라고 길을 떠났다.

남쪽이라고만 했지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는 길에서 선재동자는 선지식의 힘을 입고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선지식의 말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선지식이 내게 부처님을 뵈게 하고, 선지식에 내게 법을 듣게 했다. 선지식은 내 스승이니 나에게 부처님의 법을 보여 주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내 눈이니 나에게 부처님 뵈기를 허공과 같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내 나루터이니 나를 부처님의 연못에 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가다 해조海潮라는 곳에 이르렀다. 보장엄원普莊嚴園을 살펴보니, 온갖 보배로 이루어진 담장이 둘러 있고 모든 보배나무는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 나무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지며,

꽃향기가 사방에 진동했다.

휴사 청신녀는

순금 자리에 앉아 해장海藏 진주 그물관을 쓰고, 천상의 것보다 더 좋은 순금 팔찌를 끼고 있었다. 검푸른 머리카락을 드리우고 큰 마니 그물로 머리를 장식했으며, 사자구師子口 마니 보배로 귀고리를 하고 여의주로 영락을 만들었으며, 온갖 보배 그물(寶網)로 몸을 덮어 드리웠다.

이 청신녀를 보는 이는 병고가 다 사라지고, 번뇌의 때를 벗고 나쁜 소견을 뽑아 버린다.

장애의 산을 부수고 걸림 없는

청정한 경계에 들어가며,

선근善根을 더욱 밝히고 감관을 기르며, 지혜와 총지總持문에 들어간다. 그리해서 삼매문과 서원문과 미묘한 수행문과 공덕문이 앞에 나타나며,

마음이 광대해 신통을 두루 갖추고 몸에는 장애가 없어 모든 곳에 이른다.

선재동자는 보장엄원에 들어가 여기저기 살피다가 휴사 청신녀가 미묘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아가 발에 절하고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아직도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러자 휴사 청신녀는 말했다.

“선재동자여,

나는 오로지 보살의 한 해탈문을 얻었으니, 나를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고 나와 함께 있거나 공양하는 이는 모두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중생이 선근을 심지 않으면 선지식의 거두어 줌을 받지 못하고 부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니, 이런 사람은 끝내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생이 나를 보면

모두가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될 것이다.

동방의 부처님들이 항상 여기 오셔서 보좌寶座에 앉아 나에게 법을 설하시며, 남방 서방 북방과 네 간방과 위아래에 계시는 부처님들도 모두 여기 오셔서 보좌에 앉아 나에게 법을 설하신다.

나는 항상 부처님을 뵈고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 보살들과 함께 있다. 나의 대중은 8만 4천억 나유타인데, 모두 이 동산에서 나와 같이 수행하며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 동산에 있는 다른 중생도 모두 불퇴전의 자리에 들어간다.”

선재동자가 물었다.

“성자께서 위없는 보리심을 발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6. 불일암 구석구석



덕조 사진

김장독

하안거 마치고 배추 70포기를 심었다.
비료 농약 없이 키웠는데 절반이 잘 자라
올해 김장이 되었다.
오신채 없이 갓 고추 깨 무채와 찹쌀풀 그리고
청각을 보탠 배추가 여기,
오래된 독에 들어 있다.
겨울에도 얼지 않고 잘 익어

내년 봄까지
불일암 수행자를 응원할 친구다.
법정 스님이 입에 달고 다니던 말씀이
바람결에 실려 온다.

밭을 놀리면 게으른 수행자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송년 엽서

하늘에서
별뿔별 한 개 떨어지듯
나뭇잎에
바람 한 번 스쳐 가듯
빨리 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떠나가지요?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어서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어요
목숨까지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뜨겁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충실히 살다 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항상
우리 길을 밝혀 주겠지요?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금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유난히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아낌없는 마음으로 본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신 소중한 후원금에 대해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하오니, 꼭 확인하시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2022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유선(02-741-4696) 또는 이메일(clean94@hanmail.net)로 신청해 주시면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정확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본 모임에 등록된 내역과 일치해야 하므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간혹 익명으로 후원하신 경우 후원 내역이 불일치할 수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전화 주세요.(02.741-4696/총무팀)

후원 회원 탁상 달력 및 법정 스님 저서 <오두막 편지> 우편 발송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3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회원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2022년 탁상 달력과 법정 스님의 저서 <오두막 편지>를 11월 말일경 발송해 드렸습니다.

10월 말까지 후원 내역이 없지만, 11월에서 12월 말 중에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게는 2022년 1월 중순에 별도로 발송해 드립니다.

함께 동봉하여 보내 드린 <오두막 편지>는 신간이 아니라, 출판사의 부도로 인해 본회에서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재고 도서로 약간의 먼지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원 회원 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우편물 수신을 거부하신 분이 계

시는데, 중앙 모임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길상사 벽걸이 달력이 필요한 분은 길상사 창건기념법회일(12월 12일, 일)부터 길상사 종무실에서 수시로 나눠 드리므로, 필요하신 분은 길상사에 방문하여 받아 가시면 됩니다(우편 발송은 불가합니다).

중앙 모임 임기제 대의원 추천 및 지원받습니다.

본회 법인 정관과 중앙 모임 운영 규칙에 따라 본회 활동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책임감과 봉사 정신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회원으로, 2022년 3월 대의원총회 개최일부터 2024년 3월 대의원총회 전일까지 활동할 임기제 대의원을 추천 및 지원받습니다.

본회 사업과 회계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기타 중요 사항 논의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으로 세무사, 회계사, 수행과 NGO 활동, 사회봉사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추천 및 지원 자격은 중앙 모임 가입이 만 3개월 이상이고, 연 5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선거권(추천)이 있으며, 연 1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피선거권(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거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여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방법 : 전자 우편, 우편, 팩스, 방문

추천 및 지원 기간 : 2022년 1월 28일까지

12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지원 활동 : 3일(금)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법정스님 책 읽기 필 사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 재정 후원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02)3672-5945/전송:(02)3672-5947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일시 : 12월 4일(토) /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기도는 극락전, 설법전 및 극락전 마당 천막에 제한된 인원만큼 분산하시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길상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중계되며 개인별 발원 내용을 자막으로 올려 드립니다.

초하루기도 / 법회

일시 : 12월 4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길상사 창건 24주년 기념 법회 12월 12일(일)

12월 14일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청정한 부처님 도량으로 새로 마련된 지 24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일심으로 기도 정진하신 여러 스님, 불자님들의 정성에 힘입어 오늘과 같은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기념 법회는 창건일과 가장 가까운 12월의 둘째 일요일인 12월 12일(일) 극락전에서 사시예불 후 봉행됩니다. 법회가 끝난 후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22년도 달력을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일시 : 12월 12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일시 : 12월 21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일시 : 12월 27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1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초하루기도	12월 4일	오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12월 4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길상사 창건 24주년 기념 법회	12월 1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12월 1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2월 21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동지기도	12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관음재일	12월 2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